

##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II)”

출애굽기 40:34-38

찬양 :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384장)

1. 성막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막은 그리스도의 예표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입니다. 뭉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함께 나누어 봅시다.
3. 성도가 곧 성막입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전 3:16)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CPC와 함께 지어져 가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일까요?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4. 성막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신 8:2-4) 지금 우리에게 어떤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